

“오늘의 예배는 개혁되어야 하나?”

■ 이종윤 원로목사

종교개혁자들은 교리, 생활 그리고 예배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가성에 물 길러 온 여인과 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생수문제(교리)와 남편이 몇이 있느냐(생활) 그리고 그리스심과 예루살렘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는 질문에 <영과 진리로>새 언약의 백성의 (예배)를 말씀하셨다. 로마 가톨릭은 성인을 선택하여 미사를 드린다. 특히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를 피조물에게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들의 미사는 형식과 습관에 매인 구약의 제사로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린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되어,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를 실험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다.

예배가 변하고 있다.(changes in Worship)

오늘날 교회 안에는 high church 개념을 갖고 의식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카리스적 신오순절파와 같은 low church 입장을 강조하면서 예배의식이 없는 교회까지 있다.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요소들을 첨가하여 시도하고 있다. 소위 성령춤, 드라마, 유머가 담긴 촌극 등 회중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시청각적인 것을 동원한다. 깃대를 세우거나 필름을 보여준다. 오순절 체험이나 성령 안에서 한바탕 웃음의 시간을 갖는가 하면 popcorn(튀긴 옥수수)을 먹으면서 World cup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여 주는 것으로 예배를 대치한다. 이런 변질된 예배 형태에 대해서 성경이 금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예배를 고안할 수 있다는 루터의 입장에 반대한 요한 칼빈은<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예배에 첨가하거나 빼는 것은 죄라>고 까지 했다.

예배와 집회는 구분되어야 한다.

기독교에는 ①성례전(미사)적 예배(경교회) ②말씀과 성찬을 균형있게 한 예배(제2 바티칸공의회 이후 말씀을 회복한 로마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③성례전을 연2-4회 지키면서 설교중심 예배(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④예배 격식이나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는 예배(침례교, 오순절)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축제적 예배 형태는 예배라기보다는 집회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집회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서부 개척기에 소위 변방예배(frontier worship)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피니 같은 이들이 중심이었다. 예배전통 가운데 설교 사역이 뜨거워지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지만 천막을 치고 야영집회소에서 탈예정적인 집회를 예배로 대치한 것은 큰 갈등을 일으켰다. 예배 분위기는 기도, 찬양 심지어 성경 봉독까지도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 행위로 격하시키고, 그외 모든 것은 경험이나 회심의 황홀경을 함께 하도록 강조하는 위험한 경지를 보편화 시켰다. 그들의 관심은 거듭난 이들의 예배보다 복음을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오지의 생명들이었다.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참석했고 경험했던 집회의 기도, 찬송, 성경 봉독보다 설교가 예배의 전부라는 변방예배를 그대로 이 땅에 이식했다. 이 변방예배가 한국교회의 예배 모델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알고 있다. 한국교회는 성경을 우리말로 처음 번역할 때 예배라는 말을 멀리했다. 한 세기 동안 한국교회 강단에서 읽혀진 개역성경(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경배, 섬김 등으로 번역했다. (신약)에서 14번 찾아지나 영어권 흠정역(KJV)에서는 worship(예배)가 구약에서 115회, 신약은 75회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예배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다. 돌예배, 생일예배, 개업예배, 축하예배, 기공예배, 출판예배 등 이런 것들이 예배에 대한 무지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예배란 하나님의 창조 은총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은총을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 한다. 그러나 예배 대상이 분명치 않은 것이 현대예배의 중대한 문제다. 기도자가 갑자기 예수님이 된 양<사탄아 물러가라><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감사와 봉헌, 참회와 간구의 행동을 참여배와 혼돈하는 행위이다.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은 참여배라 할 수 없다. 예배자는 <우리는 죄인입니다><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나이다>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예식을 통해 주님과 연합함을 확인하고 새로운 감격을 체험하는 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사머니즘적 예배는 배격되고 변형된 예배 형태를 성경적 예배로 개혁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568호] 2017년 10월 21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ess Aesoon J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rk 8:22-26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Eyes to See and Ears to Hear(2)" Pastor
* Hymn	484 (Be Thou My Vision)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 비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애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수보노드, 보디소프, 린롬, 수린존(방글라데시), 김택시, 윤영모, 이금순, 김영림, 김석순(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교회를 세우는 열정, 애정, 진정”

■ 마 16: 16-18

1.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본문의 맥락은 주님께서 그 간의 제자훈련을 일단락 지으며, 이제 십자가를 향해 사역 방향을 바꾸시는 전환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어서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은 베드로의 사도직 계승을 주장하며 ‘교회란 하나의 가권적 지상 교회의 머리, 즉 교황 아래 교황이 이끄는 사제단에 의하여 통치되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교회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제도, 사제 제도는 바벨론 교회이고 비성경적이라 하였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교회론에서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으뜸되는 대적이다. 로마의 교황이야말로 기증스러운 왕국의 지도자이고 적그리스도이다.’ 고 비판하였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에서도 교황주의, 사제주의, 교권주의의 미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은 엄연히 평신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2. 전투하는 교회 (militant church)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향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현실의 교회에서는 불의가 득세하며, 거지가 큰소리치고 진실한 성도들이 수세에 몰리며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지상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하도록 부름 받은 곳입니다. 교회 내에서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하고, 교회 밖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흑암의 영적인 권세들에 대항하여 중단 없는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기도와 묵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일에만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유산을 교묘하게 향유하되 한편으로 전력을 다해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때로는 공격적인 전투를, 때로는 방어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상의 교회를 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사도들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제자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주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3.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열정, 애정, 진정

교회를 세우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첫째, 열정있는 영성, 둘째, 애정어린 언어, 셋째, 진정어린 섬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 12:11), 열심을 품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열정있는 영성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엡 4:32). 성도들 간에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바른 권면이라도, 우리는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0). 어떻게 우리의 삶과 섬김에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느냐?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무슨 일을 맡으면, 늘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누가 보든 안보든, 칭찬하든 무관심하든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맺는 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손잡고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연합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서울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주 장석남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노문환 장로	목 도	다 함 께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서문석 장로	성 시 암 9:14-15	인 도 자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임상현 장로	찬 송	다 함 께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기 도	정현구 집사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8:14-16...	인 도 자		성 경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 찬 송 Hymn	다 함 께	2(6).....	설 교	설 교 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찬 송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시 119...	다 함 께	52(시 119)...	* 축 도	설 교 자
* 송 영 Doxology	다 함 께	1(1) ...	* 주기도송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다 함 께	320(350)...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일 5: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다 함 께	634(70)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오 후 7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찬 양 Anthem	찬 양 대		기 도	박희혜 권사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성 경	인 도 자
설 교 Sermon ...“이기는 자”의 특성...	장석남 목사		찬 양	찬 양 대
(Qualities of overcomers)			설 교 ...	설 교 자
* 찬 송 Hymn	다 함 께	342(395)...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 후 7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박희혜 권사
	성 경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설 교 자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연 박수강 김복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예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예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모임

- 리브가 전도회 모임 / 12일(주) 3부 예배 후 엘리베이터 앞
- 장로수련회 / 14일(화) 아가페타운 (강사 : 이종윤 원로목사)

알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버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 2018년 8월 13일(월) ~ 8월 18일(토) 6일간
시간 : 매일 오전 5시30분 ~ 6시
장소 :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
기도인도 : 서명철 목사, 장석남 목사, 조원영 목사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3.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8월 세례식이 8월19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로서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은 세례를 위한 문답을 위해 8월 12일(주) 오후 1시20분까지 105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30분부터 문답 총정리가 있으며 바로 리허설 후에 오후 2시부터 바로 문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승환집사(010-7743-322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4.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동준(내과), 김동건(치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김관섭(영상의학)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5.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21명	231명	206명	1,258명	140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8/5)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8월 5일	헌금	47,893,600	
"	교회학교운영비		2,718,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140,300
"	교통통신비		278,640
	차량유지비		341,000
	소모품비		1,048,800
	장학비		1,676,500
	경조비		490,000
	수선유지비		141,000
	식당운영비		1,075,800
	합 계	47,893,600	8,160,040



2018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부 서	일 정	장 소	주 제	강 사
청년1부	8/13(월)-15(수)	아가페타운	“치유하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20:5)	심우진 목사
청년2부				